

# “여수박람회 국제관 놓치면 후회합니다”

EXPO 2012  
YEOSU KOREA

D-70

일본관 대지진 국제사회 지원 감사 메시지  
독일관 360도 극장…2050년 해저 탐험  
이탈리아관 크루즈 투입·‘지중해 식단’ 소개

여수세계박람회가 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람회장에 들어설 전시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에 참여하는 106개국(10개 국제기구)이 마련하는 국제관은 각 나라의 고유 문화를 맛볼 수 있는 독특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체워지는 등 ‘놓치면 후회할’ 전시관이 적지 않다.

박람회장 내 20개 전시관 중 가장 면적(13만2649㎡)이 넓은 국제관은 106개 참가국을 위한 공간으로, 개별관과 공동관으로 나뉜다. 미국·독일·스페인 등 50개국은 각각 전시공간(개별국제관)을 배정받아 독특한 문화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꾸미고, 56개 개발도상국은 대양별(태평양·대서양·인도양)로 나뉜 공동관을 활용해 전시 프로그램을 짰다.

우선, 중국관의 경우 개별국가관

에서 차지하는 면적(1241㎡)이 가장 넓다. ‘하나의 바다, 하나의 가정(One Ocean, One Home)’이라는 주제에 따라 ▲바다파도관 ▲바다발전관 ▲바다사랑관 등 3구역으로 나뉘어 중국민의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 기술을 보여주게 된다.

독일관(1132㎡)은 여수박람회장 내 전시관 건축에만 9백만 유로(약 135억)를 책정하고 관리·운영비로 5백만(75%) 유로를 추가 투입하는 계획을 세울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박람회 주제를 ‘해안’, ‘해양 생활권’, ‘보물창고’라는 세 분야로 나눠 구체화한다는 구상으로, 독일식 해변의자와 친환경 선박들이 늘어선 해변 그리고 3D로 움직이는 360도 극장이 ‘명품’ 불거진다.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은 잠수함을 타고 2050년의 해저를 탐험하는 방식



여수세계박람회장내에 조성중인 국제관 전경. 106개 해외 참가국을 위한 공간인 국제관은 박람회장 내 20개 전시관 중 가장 면적(13만2649㎡)이 넓다.

으로 이뤄져 있다.

이탈리아관(1081㎡)은 4개 해양 도시(아말피·제노바·피사·베네치아)의 전통과 이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30여개의 해상 보호 공원, 산호·진주 등을 사용한 해양 공예의 우수성을 선보인다. 이 일대에서 발굴한 그리스·로마시대의 조각품과 개인들에게 전하는 감사 메시지를 체우고 내부는 대지진의 창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일본

즈 선박을 정박해 ‘바다 위의 이탈리아관’으로 활용하는 ‘이벤트’도 추진중이다.

일본관(1064㎡)은 총 20억엔(한화 약 290억원)을 투입, 전시관 입구 외벽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에 구호의 손길을 건넨 한국과 전세계 인들에게 전하는 감사 메시지를 찾는 모로코와 플라시도 도밍고 공연과 피카소 전시회 등을 추진중인 스페인관도 ‘꼭 행경해야 할’ 전시관으로 꼽힌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전남 개발제한구역 환경개선 38억 지원

### 태양 청용동기 배수로 정비 등 9건

광주시 남구 칠석동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광주·전남 일부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8억57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해 광주에 18억5600만원, 전남에 20억100만원의 주민지원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각 지자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추진을 보류했던 사업들이다.

광주에서는 남구 칠석동과 도금동의 생활하수처리시설 조성사업 등 모두 3건의 사업이 선정됐으며, 전남에서는 탑양군 청용동기 배수로 정비사업 등 6건이 주민지원사업으로 결정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지원과는 별개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가치를 주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친환경·전통문화 복원사업을 이달 중 공모를 통해 발굴, 5월 중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기자 redplane@kwangju.co.kr

## “태양 흑점 폭발 예보해 드립니다”

### 전파연구원 ‘3일 예보’ 시작

오는 2일부터 태양흑점 폭발에 따른 전파교란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일간의 태양 흑점 폭발 확률을 알려주는 ‘3일 예보’가 시작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2일부터 우주전파센터 홈페이지([www.spaceweather.go.kr](http://www.spaceweather.go.kr))를 통해 태양 흑점 활동에 대한 예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양 흑점 폭발에 관심있는 국민이나 기업들은 우주전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경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또 태양 자전주기인 27일을 기준으로 항후 27일간의 태양활동을 예측하는 ‘27일 예보’도 주 1회 제공한다.

태양 흑점이 폭발하면 X선, 고에너지입자(양성자), 코로나 물질 등의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다. 태양 흑점 폭발 후 약 8분 만에 지구에 도달하는 X선은 지구 낮 시간대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리층을 교란시켜 단파통신 장애 및 위성·지구 간 통신장애를 불러일으켜 GPS 수신 오류 등을 초래한다. 고에너지입자는 수시간만에 지구에 도달해 우주 비행사 피폭, 위성의 태양전지판 훼손, 북극 항로를 운행하는 항공기의 단파통신 장애 및 항공기 승객 피폭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다.

태양 흑점 폭발에 따른 경보는 미국 위성과 세계 여러 곳에 배치된 관측장비의 측정 데이터 값에 따라 일반(1)-관심(2)-주의(3)-경계(4)-심각(5) 등 5단계로 자동 발령된다.

/연합뉴스

## 공무원 대 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1. 대상 - 현직공무원, 기능직, 교직원, 군무원
- 2. 한도 - 300~7000만원
- 3. 금리 - 연~5.9%미만 (천만원당 5만원미만)
- 4. 기간 - 1년~10년 중 선택 (본인선택, 영장기능)

- ◆과다대출, 연체(등급미달)자도 가능!!
- ◆고금리 대출 사용자 → 저금리 대출로 전환
- ◆개인회생자, 신용불량자 → 100~500만원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한도는 변동 될 수 있음\*

**한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제거 · 기관내 정관리 철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작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 못받은 돈!!

###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채권의 유형	대상 채권
상거래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매매 채권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금전소비대차 채권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캇顿 등
임차권 채권	주택, 상가, 저층, 중기 등의 사용료 대여로, 보증금
임금 채권	급여(정규, 일용)
가사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구상권	보증인 구상, 신원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자)
기타	저작권, 부당이득, 혐사 합의금, 기타

#### 차용증, 자불각서 상담

광주지사 영업사원 모집 062-606-9006

순천지점 영업사원 모집 061-722-1930

SM 솔로몬신용정보

대표전화 062)606-9006

영업팀장 (문재준) 010-5311-0086

철·저·한·독·일·인·의·장·인·정·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디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큽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밀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 전남 ‘녹색에너지 자립섬’ 만든다

道 연구 용역…사업비 771억 중 617억 국비 추진

전남도가, 한전 발전소가 설치된 45개 섬은 한전이 맡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전남도 구상이다. 또 133개 섬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유치해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13년 신규사업 선정 보고회’에서 ‘녹색에너지 자립 섬 조성사업’을 위해 기본계획과 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에 내년도 사업비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전남도는 전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지난해 ‘녹색에너지 섬’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중이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섬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나 열을 해당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에너지 자립화를 이루는 것을 주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 소유 발전소가 가동중인 34개 섬과 10개 미만 섬 등 59개 섬은

전남도가, 한전 발전소가 설치된 45개 섬은 한전이 맡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전남도 구상이다. 또 133개 섬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유치해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우선, 정부에 내년 사업비로 123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정부의 녹색에너지 정책과 맞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내국인 스위스 비밀계좌 추적한다

### 국회 조세조약 비준…역외 탈세 조사 탄력

한국인들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둔 돈을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스위스 비밀계좌를 활용해 세금 주적을 피해왔던 기업과 부유층 등의 비자금 추적과 역외 탈세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4000억원대 세금 추징 조치를 당한 시도상선 권역 회장도 스위스에 계좌를 뒀던 것으로 알려져 그 실제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2010년 정식 서식지를 거쳐 작년 6월 국회에 제출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해 스위스내 금융정보를 포함

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1일 밝혔다.

스위스 은행은 철저한 고객관리와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 전 세계 검은 돈의 전용 창구로 활용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정보 교환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역외 탈세 추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스위스 은행은 7월 중에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양국간 조세조약 개정안의 발효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 저축銀 비리 이철규 前경기경찰청장 구속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철규(55) 전 경기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당시 유 회장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5천만원 액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전통 침·뜸·부항

미국 이민 및 해외한의사 진출 설명회

- ◎ 중국 중의약대학과 18년간 학술교류로 체계화된 교육과정
- ◎ 중의약대학 침구과(3년), 중의과(5년) 학점인정
- ◎ 해외에서 인정되는 중국 자격증 취득가능
- ◎ 중국, 미국 한의대 석박사과정 입학 및